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11.(수) 14:30
(지 면) 2026. 11.12.(목) 조간

고속도로 대설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한다

-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 대설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차량 다중 추돌·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재난 대응·수습체계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1일(수)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지방환경청, 강원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육군 6303부대,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군 14개 기관 130여 명의 인원과 제설차·구난차·헬기 등 6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올해 겨울은 엘니뇨 영향으로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고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른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대설로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 대형 사고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훈련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되고 시간당 3㎝의 눈이 내려 누적 적설량이 20㎝에 이른 가운데, 치악휴게소 부근에서 염산 운반 탱크로리와 대형버스 등이 연쇄 추돌해 대규모 정체와 차량 고립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인명피해와 유해물질(염산) 유출에 따른 ▲교통통제 ▲

유해물질 처리와 방제작업 ▲구조·구급 ▲고립자 구호물품 전달 ▲제설장비와 인력 동원 등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11월 11일(수) 08시~18시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본선 구간(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되며, 차량은 치악휴게소 광장부로 우회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 제한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응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제 대설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피해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일령 (044-205-5230)
		담당자	사무관	최회동 (044-205-52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